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만국가정원 겨울밤 수놓을 '별빛축제' 개최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뮤지컬 '광쇼', '오즈의마법사', '우카탕카 코믹쇼', 별빛 아래 펼쳐지는 빛의 향연 라이트 가든 등이다. 순천만습지센터 내 1~2층에 설치될 정원 속 동화나라는 대형 키즈카페를 연상할 만한 놀이터가 조성된다. 어린이 동화를 모티브로 한 정원 속 동화나라는 캐릭터 전 시존(포토존), 아트·직업 체험존, 놀이존, 부모님들을 위한 북카페를

순천만국가정원의 겨울밤을 수놓을 2018 별빛축제 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한국정원, 서문광장 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정원에서 겨우내 놀자'를 주제로 가족·연인들이 겨울정원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 방학 시즌동안 즐길 거리를 찾아 고민하고 있다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펼쳐지는 축제를 즐길 것을 추천한다. 주요프로그램은 아쟁의 세계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나이트사파리', 신비하고 재밌는 '정원 속 동화나라 전시·공연·체험전', 가족

동화속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직업체험은 과자집 만들기, 레이싱, 연예인 등 인기 있는 체험으로 진행되며 빛 축제인 만큼 빛을 이용한 블랙라이트, 동화 캐릭터 그리기 등 아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현장 선착순 접수로 체험이 가능하다. 이번 별빛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국정원을 배경으로 리얼한 아쟁의 세계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나이트사파리'다. 빛과 정원의 대 자연을 ICT기술로 결합시킨 미디어아트쇼는 관람객에게 스펙타클하고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명당을 수호하는 HERO

의 이야기로 구성된 6개의 존은 백두대간을 넘어 순천만에 등장한 HERO를 시작으로 정원의 최정상에 서 포효하는 아쟁의 HERO로 마무리 된다. 운영은 매일 저녁 5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다. 올해 별빛축제는 역동적인 가족형 축제로 진행되는 만큼 크리스마스과 연말연시에는 가족 관람객을 위한 특별기획 공연도 진행된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22일부터 25일까지는 난타, 댄스,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된 '광쇼'가 진행된다. 특히 광쇼는 다양한 불거리에 뱅만들기 체험이 공연 중 함께 진행돼 또 다른 흥미를 유발한다. 연말연시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는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자극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 '오즈를 찾아서'가 진행된다. 공연은 17시30분과 19시 2회 운영된다. 또한, 축제기간 중 주말·공휴일에는 마술 마인, 슬랩스틱 코미디 등이 결합된 '우카탕카' 코믹쇼가 하루 2회 진행될 예정이다. 별빛축제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은 빛의 향연으로 물든다. 눈꽃, 크리스마스, 눈사람 등 상상 속 신타마을을 테마로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초대할 라이트 가든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가족, 연인, 친구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와 5M 높이의 대형 에어조형물로 설치되는 스노우빅맨은 인생샷을 건질 포토 스팟으로 추천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 연구과제 발굴

보성을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 등 5개 시책 제안



보성군 공무원 연구모임은 지난 2015년부터 14개 팀으로 시작되어, 2016년 7개팀, 2017년에 10개팀이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다. 올해에는 직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구성된 5개 연구모임은 스스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한 구성원별 역할 부여, 과제별 자료수집과 토론, 현장조사

와 워크숍 등의 활발한 연구과정을 통해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로 완성했다. 또한, 발굴된 연구과제는 1차 서면심사와 내·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차 발표회 과정을 통해 시책화가능성, 파급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결과를 거쳐 올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 과제를 비롯한 모든 연구과제들은 법적 절차, 효율성, 타당성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군정 시책으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3기 예비위원 모집

순천시에서는 청년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고 청년정책 의제를 제안하는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3기 예비위원을 17일부터 모집한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청년단체 활동경험이 풍부하고 청년 관련 전문성이 있거나,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정책 마련에 관심있는 청년,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청년통'은 2016년 11월 7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순천형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청년 중 청년단체 활동경험이 풍부하고 청년 관련 전문성이 있거나,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정책 마련에 관심있는 청년, 다양한

고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unchonyouth@naver.com)로 제출하거나 구글 폼(https://goo.gl/forms/VqXIEgRbgeNNuqAE2)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년정책팀(061-749-5608) 및 순천시청년센터(061-753-464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황경석 기자

광양시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광양시는 전남도에서 실시한 2018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부패 없는 밝고 맑은 청렴전남 실현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부패방지 시책 활용, 부패방지 성과를 산출해 각 시군별로 4등급으로 나뉘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가장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1등

급을 받은 시·군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시는 부서 순회 청렴 컨설팅, 전 직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민관합동 청렴워크숍, 청렴실천 캠페인, 반부패시스템 등을 운영해 왔다. 또 부패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찰·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최고 청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라는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구례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합동 캠페인 실시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례읍 5일 시장 일대에서 관내 자전거협회 회원들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과 자전거협회 관계자 20여 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9월 28일 시행)에 따른 자전거 안전도 의무착용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적극 홍보했다. 참여자들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두행진을 펼치며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반사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는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구례군은 동시에 관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걸쳐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위험도로에 대한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노선변경 등을 이산 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도로 시설물 DB 구축으로 예산절감

광양시는 도로와 도로시설물 DB 자체 구축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06년부터 도로 및 지하 시설물 DB 구축사업 초기부터 양성한 전문 인력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지난해까지 1,518km를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해 지난해까지

116억 원의 예산 절감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자체전담인력을 구성해 지난 1월부터 지난해까지 광양시 지역 205km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37종(가로등, 신호등, 방지막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GPS측량을 실시했다. 광양=황경석 기자

이를 통해 신설, 변경 시설물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보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시민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황경석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수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